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318

청소년NEWS

미래의 동량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는다



1318.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이다.

“13~18세의 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이며,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지역의 미래다”

봉사활동 앞장서니 학업성적도 쑥쑥

고성고등학교 학생 봉사단체 ‘사랑을 나누는 모임’ ... 11년째 교내·지역사회 봉사활동 펼쳐

“봉사를 할 때 마다 뿌듯합니다. 보람이 있고 행복해요.”

고성고등학교 학생 봉사단체인 ‘사랑을 나누는 모임’(11기 회장 강엄지)이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틈틈이 아동 및 노인들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벌여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다.

‘사나모’는 매월 2회씩 놀토(등교를 하지 않는 토요일)만 되면 자발적으로 모여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을 찾아 청소와 가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봉사가 벌써 11년째라고 한다. 3학년 학생들이 1년씩 회장을 맡기 때문에 현재 회장인 강엄지 학생은 11기 회장이다.

이 단체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한 선배들은 사회 진출해서도 지역 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만큼 전통이 있는 봉사단체라고 입을 모아 자랑을 한다.

현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들은 봉사활동도 잘하지만, 학교 수업도 충실해 다

들 성적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사나모는 처음에는 교내 봉사로 시작했다. 교내 화장실 청소, 휴지줍기 등 교내의 청결은 도맡아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혀보자는 회원들의 생각이 사회봉사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지역의 소외계층인 아동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을 상대로 점차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봉사내용도 다양해 아동체험활동 보조, 명태축제 장애인 휠체어 봉사, 어린이 공부방 학습 지도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대청소하기, 행사도우미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수발 및 말벗되어주기 등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고성 관내 유일의 요양원인 소망요양원 및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 목욕과 청소를 돕기도 한다.

특히 많은 행사가 있을 때는 회원들을 적극 참석시켜 아동은 3개팀에서 4개팀, 노인은 6개팀



고성고등학교 학생 봉사단체인 ‘사랑을 나누는 모임’ 회원들이 지난 16일 교내 도서관에서 만나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에서 7개팀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해 나간다.

봉사활동을 통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사나모는 지난해 고성군 자원봉사 대회에서 회원 2명이 개인 부문 군수 표창장을 받는 기쁨을 토했다.

표창장을 받은 11기 회장 강엄

지 학생은 “옆에서 서로 함께 봉사를 한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고맙다”며 “하지만 이상은 사실 우리 사나모 회원 모두가 받아야 하는 상”이라며 활짝 웃었다.

역시 군수 표창을 받은 박세림 학생은 “아직까지 홍보가 부

족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회에 진출해서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소동령마을서 ‘생태문화체험탐방’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9일 초등학교 4~6학년생 30여명과 함께 간성읍 장신리 소동령마을을 찾아 주말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생태문화체험탐방’을 개최했다.

이번 탐방은 자연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끼며 스스로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 및 자연의 소중함을 발견해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탐방에서는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통방법으로 촌두부를 만들고 신비의 색이 살아 있는 천연염색과 기쁨을 나누는 솜대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고성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멘토와 함께하는 꿈 장학생’ 공모

삼성꿈장학재단 4월 1일까지 접수 ...초 5학년~고 3학년 대상

삼성꿈장학재단은 꿈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까지 ‘멘토와 함께하는 꿈 장학생’을 공모한다.

삼성 꿈 장학생은 멘토 교사의 교육적,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격은 꿈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면 된다. 지원내용은 학습 및 진로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급별에 따라 12개월 동안의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간 120만원(월 10만원 기준), 중학생은 연간 180만원(월 15만원 기준), 고등학생은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기준)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학생의 경우 ‘꿈 장학 지원 신청서’를, 멘토 교

사는 ‘멘토링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증빙서류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과 경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최종선정자 발표는 5월 중순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 (02) 727-5400~5401, 재단 홈페이지(www.sdream.or.kr))

최광호 기자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